



김 동 환
대한양돈협회 회장

사료안정기금에 대해

양돈선진국들과 FTA 타결에 따라 2014년부터 외국산 돼지고기가 무관세로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향후 5년 이내에 축산선진국들과의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국내 양돈산업은 크게 위축되어 결국에는 붕괴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도 있다.

특히 최근 국내 양돈산업은 돼지열병 상존과 소모성질환 피해 및 가축분뇨 처리비 증가에 따른 생산성 하락과 농가 채산성 악화로 도산과 폐업이 확산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은 심각하리만치 불안한 형국이다.

앞친데 덮친 격으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비 급등으로 금년 상반기에 돼지마리당 사료비가 16만5천원대로 예상되어 돼지가격이 지육 kg당 3,500원 이하로 형성될 경우 농가들은 적자경영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갈비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외국산 수입 돈육 급증 등으로 올해 연평균 지육가격은 kg당 3,000원에서 3,200원 수준으로 전망되어 올 한해 양돈농가는 돼지 한 마리당 평균 4만원~5만원 정도의 적자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특히 최근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EU와도 FTA 협상이 전국 농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양돈산업 개방화가 피할 수 없는 대세로 다가옴에 따라 양돈협회에서는 양돈산업 생존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농가들이 축산선진국들과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데 최대한의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가축분뇨자원화, 소모성질환 극복, 국산돈육 차별화 등을 통해 양돈생산기반을 튼실히 하는 동시에 돼지열병 청정화, PRRS 안정화 등 질병 퇴치를 통해 외국으로의 돈육 수출을 추진하는 등 양돈산업 생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 배합사료 가격 폭등 심각한 수준

한편 국내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 2006년 5월을 기점으로 그해 10월 6% 인상, 2007년에는 세 차례에 걸쳐 1년간 21.4%가 인상되었다. 또한 올해 초에도 약 9%가 인상되어 2006년 5월부터 최근까지 총 36.4%가 상승

해 양돈농가의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등 배합사료 수급을 둘러싼 양돈산업 환경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어 앞서 언급한 현안 해결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국내 양돈산업의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사료가격 상승은 옥수수·대두박 등 국제 곡물값 상승에 따른 조치여서 사료값 인상을 손 놓고 바라만 보아야 하는 처지가 참담하기까지 하다.

양돈농가 생산비중 60~70%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가격 변화에 따라 농가 소득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이며, 사료비를 어떻게 절감하느냐에 따라 농장 존폐를 가늠하게 되는 현실이 된 것이다.

특히 최근 산지 돼지가격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및 사상 최대의 돼지고기 수입 등과 함께 소비 부진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약세를 면치 못해 지난 몇 년간 형성했던 가격 수준을 한참 밑돌고 있는 상태에서 사료값 폭등, 소모성질환 피해 등으로 생산비까지 치솟아 대부분의 양돈농가들이 적자에 시달리고 있어 언제 농장을 압류 또는 폐업하게 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

양돈협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양돈농가의 MSY(모돈 1두당 연간출하두수)는 평균 14두로 이러한 상태에서 사료가격이 kg당 43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올해 돼지 한 마리(100kg기준) 생산비는 256,166원으로 조수입 204,235원(비육돈 지육가격 3,000원/kg, 지육률 68%)이 생산비보다 5만 1천원 가량 낮게 나타나 돼지 한 마리(100kg)당 소득은 약 5만원 가량의

적자를 보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사료가격 인상이 예정되어 있어 농가들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국내 양돈농가들이 가격 적자폭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수준은 이미 넘어섰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양돈농가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농가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돼지고기 산업이 붕괴되어 고스란히 외국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사료안정기금 도입 등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2. 사료안정 대책 마련 시급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인해 양돈 농가의 재산성은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현재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국내 축산업 환경에 적합한 사료안정 대책 마련이 그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즉 사료가격 안정 긴급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돼지 생산비와 도매시장 가격 차이가 해소될 때까지 한정적으로 정부가 사료안정기금을 조성해 각 농장별 배합사료 사용 실적에 준하여 농가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며, 사료업체에 대한 사료원료 구매자금 지원확대, 사료제조업체에 대한 의제매입세 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 외국의 옥수수 생산 저개발 국가를 대상으로 현지투자

개발을 통해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등 사료원료 해외자원개발사업 지원방법, 사료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사료 판매 가격을 인하시키는 방법, 사료공장 면세유 적용을 통해 사료 제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방법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본의 예를 보면 일본은 ‘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 ‘사료곡물비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양축농가와 사료업체, 정부가 기금을 마련하여 국제곡물가격 상승분을 보조하거나, 매년 120여만 톤의 곡물을 비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료원료 수입국으로 '06년 4/4분기부터 '07년 2/4분기까지 연속적으로 약 20% 사료가격이 인상되었으나, 실제 농가가 부담한 인상률은 6% 내외에 불과했다.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 우리도 정부·업체·농가가 공동으로 대응하여 고곡가 시대에 생존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 마련과 함께 장기적인 안정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농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사료업체는 경영합리화나 대체원료개발 등에 힘쓰고, 정부는 세제개편 등 당장 개선할 수 있는 단기대책과 함께 장기대책 마련이 동시에 들어가야 한다.

즉 현재 시장 가격과 생산비의 큰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정부의 특별지원이 시급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사료안정기금을 통해 해외 곡물을 선점, 안정적으로 사료원료를 확보하는 등의 공격적인 방법 또한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곡물 사료가격 상승은 국제적인 현상으로 정부, 농가, 업체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료 공급을 위해 대부분을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내 축산 현실에 맞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

3. 돼지생산안정제도 도입돼야

이와 함께 돼지생산안정제 또한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돼지생산안정제란 전국 도매시장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축산발전기금으로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거기에 양돈농가에서 일정액을 계약금 예치형식으로 부담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구제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즉 국내 돼지가격은 계절별 가격편차가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가격 변동 폭 또한 심한 현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농가들이 안정적인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생산농가들이 매칭펀드를 조성, 돼지가격 하락 시기에 이를 활용해 돼지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우산업의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제’가 시행되고 있고, 미국·덴마크 등도 돼지가격이 하락할 경우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으로 외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다.

[외국사례]

- 미 국: ‘축산총마진제도(LGM)’ 실시(돼지 가격 하락 시 가격과 생산비 차이 보험 형식으로 보장) ‘축산위기보호제도(LPR)’ 실시(보장가격 수준 이하로 가격 하락 시 가격보장)
- 덴마크: ‘민간재고비축지원(PSA)’ 실시 (가격 급락시 재고 보관비용으로 보조금지급)
- 일 본: ‘지역 육돈 생산안정기금 조성사업’ 실시 (돼지 안정기금발동, 기준가격보다 시장 가격이 낮을 경우 보전)
- 중 국: ‘중돈 보조금’ 실시 - 홍수·태풍·폭우·낙뢰 같은 자연재해, 돼지열병 등 각종 전염병, 화재·산사태 등 온갖 사고로 양돈농가가 피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 지급
돼지고기의 충분한 공급과 가격 안정화를 위해 2008년부터 중돈 보조금 2배 지원 (현재 48위안 100위안으로 증액) 및 보험가입 양돈농가 수 대폭 확대 예정

중국의 경우에는 돈가가 하락하고 있는 국내 사정과는 반대로 2007년 돈가 상승으로 인해 식료품 가격이 급상승하여 큰 혼란이 발생했다. 그러자 중국 당국은 양돈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돼지를 사육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돈 보조금’의 국가 지원을 약 2배로 늘리고, 비축해 놓은 옥수수를 방출하고, 대출기관의 양돈농가 지원 확대 방침을 지시했다. 돼지생산과 소비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돼지 가격의 하락으로 생산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사료 공급 면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돼지생산안정제가 꼭 필요하다 하겠다.

4. 민·관계 동시 노력 경주 필요

또한 양돈농가들의 마음가짐도 중요하다.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하더라도 농가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따라와 주어야만 그 제도의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생산비 절감을 위한 노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혹여나 소실되는 사료가 없는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밀사를 방지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국 농가의 MSY 평균이 14두에 머물고 있는 점은 그 어떠한 이유를 들더라도 심각하게 되짚어보아야 한다. 시설개보수의 어려움, 소모성질환 기승 등의 요인이 있으나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우리 양돈농가들의 책임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고곡가 시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다만 작금의 현실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방위 노력 등 농가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피나는 노력을 통해 개선하고, 사료업계의 고통분담 노력과 함께 정부는 앞서 열거한 정책적인 지원이 최대한 이뤄져 고사위기에 처한 국내 양돈산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